한중Zine
INChinaBrief
Vol.391 2021.01.11.
ISSN 2765-1444

중국 14차 5개년 규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

인천연구원

한중Zine
INChinaBrief
Vol.391 2021.01.11.

중국 14차 5개년 규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 (dhkim@bufs.ac.kr)

목 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3. 〈14·5 규획〉 경제분야 목표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과 영향으로 1953년(1차)부터 시작
- 〈11·5 규획〉(2006~2010)부터 시장화와 WTO 가입으로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규획'으로 전환
- 〈13·5 규획〉(2016~2020)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20년 한 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경제사회 발전목표 중 15개는 달성 예상
- 〈14·5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목표는 ① 경제발전의 新성과 달성, ② 개혁개방의 新전진, ③ 사회문화 수준의 新향상, ④ 생태문명 건설의 新진보, ⑤ 민생복지의 新도약, ⑥ 국가 거버넌스의 新제고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14·5 규획〉과 함께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를 심의·통과
-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내로 예측
  - 공식 성장목표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경제성장보다는 도시화율·GDP 내 소비 비중·R&D 비용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중점 예상
- 〈14·5 규획〉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경제·녹색 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중점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촉진하는 발전전략으로, 미국의 장기간 제재에 대응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 선순환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
  -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및 녹색성장 발전방식은 미래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에 따른 중국진출 전략의 '대전환', ②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응, ③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한중간 협력 모색, ④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요구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1) 5개년 경제 계획의 시작

▣ 소비에트 연방에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제발전 계획을 중기(3~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 관련 법률·법규를 마련하며, 그 계획을 집행한 후 이를 분석하여 다시 차기 회차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그 효시임.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1917년 11월 7일 '10월 혁명' 직후에 결성되었고, 1922년 12월 30일에 자카프카스·우크라이나·벨라루스가 통합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약칭:소비에트 연방)이 태어남.[1)]

○ 소비에트 연방의 첫 번째 제1차 5개년 계획은 1929년에 시작되었으며, 독일 베를린 장벽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1년까지 12차례 집행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시기(1939~1945)를 제외하고 5개년마다 국민경제 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집행되었음. 제1차 국민경제 5개년 발전계획은 1929~1933년간에 제12차 발전계획은 1986~1990년간에 집행됨.
- 5년이라는 기간은 대규모 경제건설을 위해 충분하며, 이를 건설 단계별로 세분화하기에 적당하고, 평균수확량(농업)을 계산할 수 있는 일정한 주기가 관찰되는 기간이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영위한 소비에트 연방에서 채택한 것임.

▣ 중국에 도입된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였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인적·물적 지원으로 수립·집행되었음.

○ 1949년 10월에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과 1950년 2월에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원조를 협약 받음.

- 위 조약에 근거하여 1952년 8월, 제1차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해 중국 방문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소비에트 연방 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T/F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1)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로 구성된 연방국이었다.

1953년 5월에 제출되어 1954년부터는 수정된 중국의 제1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함.

[표 1] 중국의 5개년 계획(규획)의 기간별 정의와 특징

구분	기간	정의	특징
〈1·5 계획〉	1953~1957년	신중국의 성립	• 1949년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체제 구축 • 소련 지원으로 주요 프로젝트 건설
〈2·5 계획〉	1958~1962년	중공업 체계육성	• 대약진운동과 경제체제 영향, 소련 지원중단과 영향
〈3·5 계획〉	1966~1970년	문화대혁명기간 경제체제 수립	• 2·5기간 경제정책 평가 및 농업, 경공업 분야 변화 •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년) 경제체제 유지
〈4·5 계획〉	1971~1975년		
〈5·5 계획〉	1976~1980년	개혁개방의 시작	• 문화혁명기간 경제정책 평가 및 개혁개방 정책 대두 • 개혁개방 초기 정책 효과 시현
〈6·5 계획〉	1981~1985년	주요 산업배치	•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중점산업 발전 • 난개발 정리 및 경공업과 중공업 균형 발전
〈7·5 계획〉	1986~1990년	상품경제의 도입	• R&D 및 과학발전 계획 추진, 국유기업 개혁
〈8·5 계획〉	1991~1995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	•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주요 시장화 조치 추진 • 남순강화(1992)
〈9·5 계획〉	1996~2000년	샤오캉과 중산층 발전전략 추진	• 중산층 형성 및 중국의 해외투자(OFDI) 추진
〈10·5 계획〉	2001~2005년	WTO 가입과 글로벌 체계 편입	• WTO 가입을 위한 경제체제 변화 및 경제발전모델 전환 시작
〈11·5 규획〉	2006~2010년	시장화의 시대	• 도시화 전략 도입과 내수진작을 위한 시장화 조치 추진
〈12·5 규획〉	2011~2015년	신창타이(뉴노멀) 시대 진입	• 신창타이 시대 진입 대비, 민생 경제체제 구축
〈13·5 규획〉	2016~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

자료: 김동하(2019a)

○ 이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 붕괴 기간(1963-1965)을 제외하고는 2005년까지 제10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됐음.

-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에도 〈3.5 계획〉 및 〈4.5 계획〉이 수립·집행되었음. '삼선건설'로 대표되는 중공업 및 방산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로 인해 이 시기에 급격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졌음.[2)]

2) 삼선건설: 1964년 10월 마오쩌둥이 제기한 지역발전전략. 대약진시기 중소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2) '계획'에서 '규획'으로의 변화

▣ 시장화라는 내부요인과 WTO 가입이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계획'은 종언을 고하고, 2006년부터는 '규획'이 등장

○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기간에 거시경제 전 분야가 가속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더이상 단기성 '계획'을 담을 수 없었던 11차 5개년 규획(2006~2010)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중장기 계획을 의미하는 '규획'으로 명칭이 변경됨.

- 〈9·5 계획〉(1996~2000)부터 '계획'의 성질에 변화가 있었는데, 실제 기존의 단기성 계획의 지시와 하달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됐음.
- 중국 공산당 특히 중앙위원회 차원에서의 집정(执政) 이념이 변한 결과, 11차 5개년 규획을 계기로 미시경제 각 분야에 대해 관리·감독권 행사를 당연시하던 집정이념은 법률·법규에 따른 거시경제 조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됨.

○ '규획'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가장 강력한 외부요인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을 꼽을 수 있음.

- 11차 5개년 규획을 편제해야 하는 2005년에 이르러 중국은 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시장화 조치로 계획경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가격(지령성 가격)이 전체 상품의 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반면에 시장가격(시장조절가) 해당 제품은 95% 이상으로 변화되었음.[3)]
- 또한, 2005년 말 상무부 공평무역국 판단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화 정도는 73.8% 수준으로 UN의 세계 시장화 기준 구분선인 60%를 초과함.

개입하면서 지도부의 국방·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이에 내륙지역 방위산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짐. 이 시기 전국을 1선(동부연해), 2선(중부), 3선(쓰촨·윈난·구이저우·산시(陕西)·간쑤·칭하이·닝샤·산시(山西)·허난·후베이·후난 서부)으로 구분하여 신규 산업시설을 3선에 집중한 것이 '삼선건설'임. 그 결과 '70년대 말까지 2.9만 개 3선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2천 개 중대형기업과 연구단지, 45개 대형생산기지 및 30개 신흥도시가 건설됨.(『중국경제론(3판)』, 곽복선 외,2018)

3) 1997년 제정된 《가격법(价格法)》에 근거, 시장조절가격, 정부지도가격, 국가가격이 존재. 시장조절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며, 정부지도가격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가(상하 유동제한), 최고제한가, 최저 유지가, 이윤 관리가(도소매·매입매출 차이 규정) 등으로 운영함. 국가가격은 전기·교통요금과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함. (『현대중국경제와 통상제도(3판)』,김동하,2016)

▣ '규획'의 도입으로 중국의 중기(中期) 경제발전 플랜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

○ 첫째, '계획'과 '규획'의 차이점은 계량화된 지표의 변화에 있음. 전반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경제지표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며, 사회지표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

- [표 2]는 〈6·5 계획〉 기간부터 〈11·5 규획〉 기간까지 '계획'과 '규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량화 지표(수치로 제시된 개별 발전목표 항목)를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로 비중을 나눈(총합 100%) 것임.
-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 지표 비중은 〈6·5 계획〉 기간(1981~1985)부터 〈9·5 계획〉 기간(1996~2000)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0·5 계획〉 기간(2001~2005)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짐. 반면, 사회지표에 속하는 교육·과학·기술이 23.3% 인구·자원·환경 지표가 20% 수준까지 높아졌음. 첫 번째 '규획'인 〈11·5 규획〉 기간(2006~2010)의 특징은 국민생활지표가 38.1%로 최고치를 기록한 점임.

○ 둘째, '규획'의 수립에 공공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됨.

- 11차 5년 규획부터 '규획'을 제정하면서 비록 간접적인 방법을 채용했지만, 처음으로 공공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여 5개년 경제발전 규획 제정에 참조했음.
- 언론에 공개된 「11·5 규획 제정에 관한 설명(关于制定十一五规划建议的说明关于制定十一五规划建议的说明)」에 따르면, 11차 5개년 규획은 초안(草案) 제정 이전에 토론용 원고(讨论稿)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당조직(각급 위원회), 공상업계 책임자(CEO), 전문가(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했음.

○ 셋째, 이전의 '계획'은 대량의 공업, 농업 생산실적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에 중점을 둔 반면, '규획'은 국민경제발전·사회발전·자연환경발전·삶의 질 지표 등을 포함함.

- 〈11·5 규획〉에서는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분야에서 5장에 걸쳐 순환경제의 중요성과 자원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최초로 해양자원과 기후자원(태양광, 풍력, 수자원)에 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넷째, '규획'의 차이점은 거시경제 조정수단을 강조한 점을 들 수 있음.

- 11차 5개년 규획은 제8편 체제개혁 심화 부분에서 행정적 수단이 아닌 중앙은행(인민은행)이 역할을 발휘하는 금리, 환율을 활용한 시장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다섯째, 11차 5개년 규획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사회발전 목표 지표가 예기성(预期性)과 준강제성(约束性)으로 구분하여 제시됨.

- 이전 '계획' 내 지표들은 각 부처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강제성 지표였던 것에 반해, 〈11·5 규획〉에서는 자율지표(예기성)와 제한적 지표(준강제성)로 이원화하여 더 자유로운 경제·사회 발전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함.
- 중국 정부가 밝힌 정의를 보면 예기성 지표는 국가가 희망하는 발전 목표임. 이들 지표는 주로 시장주체의 자주적 행위에 의해 실현되며, 그 달성을 위해 정부는 양호한 거시·제도·시장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11·5 규획〉에서 명시하고 있음.
- 〈11·5 규획〉에서 명시된 대표적인 예기성 지표는 GDP 성장률, 1인당 GDP, 경제구조(서비스업 GDP 및 취업비중, R&D 경비의 GDP 비중, 도시화율), 공업고체폐기물 이용률, 공공서비스(국민평균 교육연도, 도시 신규취업 및 농촌노동력 이전, 도시실업률, 도시민 가처분소득, 농민순수입) 등임.
- 준강제성 지표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강화하는 지표이며, 지방정부 관련 부처는 이를 달성해야 함.
- 〈11·5 규획〉에서 명시된 준강제성 지표는 인구·자원·환경(인구,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소율, 단위 공업증가액 용수량 감소율, 경작지 보유량,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율, 삼림피복률), 도시기본양로보험 및 신형농촌합작의료 보급률 등임.

[표 2] 중국의 매 5개년 경제개발 계획(규획)기간 중 계량화 지표 비중 (단위: %)

항목/기간	6·5	7·5	8·5	9·5	10·5	11·5
경제성장	15.2	21.4	26.9	23.5	10	9.1
경제구조	45.5	35.7	30.8	23.5	23.3	13.6
경제 지표 소계	60.7	57.1	57.7	47	33.3	22.7
교육, 과학, 기술	15.2	7.1	3.8	11.8	23.3	9.1
인구, 자원, 환경	3	3.6	7.7	11.8	20	31
국민생활	21.2	32.1	30.8	29.4	23.3	38.1
사회 지표 소계	39.3	42.9	42.3	53	67.7	77.3

자료: 胡鞍钢·鄢一龙(2012).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1) 13차 5개년 규획의 평가

▣ 성장 목표치가 제시된 〈6·5 계획〉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미달성

○ 6차 5개년 계획 기간(1981~1985)부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12·5 규획〉까지 34년 동안 경제성장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

- 〈6·5 계획〉 기간만 GNI(국민총소득)가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그 이전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등이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됨.
- 〈7·5 계획〉 이후부터는 GDP 성장률이 목표치로 제시됨.

○ 〈13·5 규획〉 기간 중국경제는 매년 6.1% 이상 안정적 성장을 유지했으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미·중 간 무역전쟁, COVID-19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머물 전망임.

- 2016년에는 6.8%, 2017년 6.9%, 2018년 6.7% 그리고 미·중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던 2019년에 중국경제는 6.1% 성장률을 기록함.

[표 3] 〈9·5 계획〉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적치 (단위: %)

구분	시기	목표 연평균 경제성장률	실제 연평균 경제성장률
〈9·5 계획〉	1996~2000	8.0	8.6
〈10·5 계획〉	2001~2005	7.0	9.8
〈11·5 규획〉	2006~2010	7.5	11.3
〈12·5 규획〉	2011~2015	7.0	7.9
〈13·5 규획〉	2016~2020	6.5	5.8 (추정)*

주: 2020년도 성장률은 KIEP 전망치(2.2%)를 적용하여 *13.5 기간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함.
자료: 김동하(2019a), 현상백 외(2020).

○ 이에 따른 2016~2019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를 기록했으나, 2020년 한 해 성장률을 2.2%로 추정(현상백 외. 2020)할 경우, 〈13·5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 실적치는 목표치(6.5%) 대비 0.7%포인트 낮은 5.8%로 추정됨.

- 2020년 3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은 0.7%에 머물렀음.(1Q -6.8%, 2Q -1.6%)

○ 2020년 성장률이 2.2% 이상을 기록할 경우, 〈13·5 규획〉 목표치 대비 미달성 정도는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집행 역사상 첫 번째로 경제성장 목표 미달성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기 어려워 보임.

-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9개 투자은행의 2020년 중국 경제성장 평균 전망치(10월 말 기준)는 2.2%였으며, 중국 금융기관인 중신증권(11.17)은 2.1%로 전망한 바 있음.

▣ 〈13·5 규획〉에서 제시된 25개 경제사회발전 목표(계량지표) 중 2019년 말 기준으로 15개는 목표 달성 예상

○ 〈13·5 규획〉은 경제발전, 혁신추진, 민생복지, 자원환경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25개의 경제사회발전 목표(계량지표)를 제시했음.

- [표 4]를 참고하면, 25개 지표 가운데 2019년까지 실적치 자료가 확보된 21개 지표 중 15개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연율로 기존 실적치를 계산할 경우 〈13·5 규획〉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경제발전 4개 지표 중 도시화율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나, GDP 및 서비스업 성장률은 2020년 한 해의 경기침체로 목표치에 미달할 전망임.

- △상주인구 도시화율 목표는 60%였으며, 2019년까지 실적치는 60.6%를 기록했음. △호적(후커우)인구 도시화율 목표는 45%였으며, 실적치는 44.4%로 〈13·5 규획〉 기간 목표달성이 가능해 보임.

○ 혁신추진 4개 지표 중 GDP 내 R&D 경비 비중을 제외한 3개는 목표달성 전망.

- △과학기술 발전 공헌율은 목표치가 60%였고, 2019년까지 실적은 59.5%를 기록. △고정 광대역 인터넷 가정보급률은 목표치 70%, 실적은 91%로 가장 높은 실적을 시현.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량(목표 12건)도 13.3건의 실적치를 기록했음.

○ 민생복지 7개 지표 중 실적 자료 확인이 가능한 5개 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목표치가 6.5% 이상이었으며, 2019년 실적은 6.5%를 기록함. △도시 신규 일자리(목표 5천만 명. 누계)도 2019년에 5,380만 명으로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음.
-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량 목표치는 2천만 호였으나, 2019년 2,160만 호로 이미 초과 달성했으며, △노동연령인구 평균 교육 연한(목표 10.8년)은 2019년에 10.7년을 기록했음.

○ 자원환경 분야 10개 지표 중 실적 자료 확인이 가능한 지표는 모두 8개인데, 이 중 5개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원료 점유비 목표는 15%였으며, 2019년 실적은 15.3%를 나타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율 목표치는 18%였고, 실적은 18.4%를 기록함. △도시지역 공기수준 양호일 수 목표는 80% 미만이었으나, 82%를 기록함. △수질 3급수 이상 비율은 목표가 70% 미만이었으나, 74.9%를 기록함.
- 반면, GDP 1만 위안당 용수량 감소율,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율, 신규 건설용지 증가분 등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13·5 규획〉의 특징은 중고속성장, 혁신경제, 중층적 지역특화,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등 5가지

○ 경제성장률은 〈12·5 규획〉 기간(2011~20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이는 〈12·5 규획〉 작성 당시 경기부양 상황을 고려, 고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강조한 것임.

○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과학기술 진전과 혁신(創新)'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 강화하였음.

○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구했으며, 도시·농촌 연계, 국내 지역과 국경지역 연계를 통합해 도농·국내외 연계를 권역별로 특화한 '중층적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제시함.

○ 대외개방은 국내외 연계형 개방경제를 통해 내수·외수 협조, 수출입균형, 해외진출-외자도입 병행,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구했음.

○ 동반(共享) 성장 분야에서는 공평한 소득 및 기회 분배로 발전의 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 4]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2016~2020) 주요 지표별 목표와 달성 여부

지표(단위)	구분	2020년 13.5기간 목표	2019년 2016~2019년간 실적
실질 GDP 성장률(%)	예기성	6.5 이상	6.7
서비스업 증가치 비중(%)	예기성	56	53.9
상주인구 도시화율(%)	예기성	60	60.6
호적인구 도시화율(%)	예기성	45	44.4
R&D 경비지출의 GDP 점유비(%)	예기성	2.5	2.2
노동연령인구 평균 교육 연한(년)	준강제성	10.8	10.7
과학진보 공헌도(%)	예기성	60	59.5
고정 광대역 인터넷 가정보급률(%)	예기성	70	91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량(건)	예기성	12	13.3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원료 점유(%)	준강제성	15	15.3
GDP 1만 위안당 용수량 감소(%. 누계)	준강제성	23	20.6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누계)	준강제성	15	13.7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누계)	준강제성	18	18.4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누계)	준강제성	15	22.5
신규 건설용지 증가분(만ha, 누계)	준강제성	217 이상	154.6
지급이상 도시 공기 수준 양호일 수 비율(%)	준강제성	80 미만	82
3급수 이상 비율(%)	준강제성	70 미만	74.9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	예기성	6.5 이상	6.5
도시 신규 일자리(백만 명. 누계)	예기성	50.0	53.8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량(백만 호. 누계)	준강제성	20	21.6
농촌 빈곤인구 탈빈곤(백만 명)	준강제성	55.75	50.2

자료: CEIC. 국가통계국 공개수치(2020.12). 华夏时报(2020.9.23.).

2) 〈14·5 규획〉 구성

▣ 〈14·5 규획〉 초안을 가늠할 수 있는 〈14·5 규획 건의〉는 2020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심의 통과

○ 2020년 10월 26~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이하, 〈건의〉)〉가 심의·통과되었음.

- 중국 정부는 〈건의〉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 강요 초안을 작성하여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건의〉를 통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경제·사회·문화·환경·국방·안보를 아우르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함.

-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사회주의 발전 1단계인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인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계획한 바 있음.[4)]

○ 중국이 5개년 규획과 15년 장기계획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직후인 1996년 〈9.5 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이후 처음으로, 이는 중요한 전환점과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함.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9대 〈2035년 장기목표〉를 발표하였고, ① 혁신적 선진국 대열 합류, ② 현대화된 경제체제 건설, ③ 법치사회 건설, ④ 사회문화 도약과 중화문화권 확대, ⑤ 녹색성장, ⑥ 대외개방, ⑦ 지역 균형발전, ⑧ 국방과 군대 현대화, ⑨ 국민생활 향상 등을 제시함.

4)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으므로 100주년은 2020년임. 그러나 샤오캉(중진국 진입) 목표 달성 시기는 〈14·5 규획〉에서 2021년으로 재차 제시됨.

▣ 〈건의〉에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개혁과제 대응을 위한 6대 목표와 48개 정책과제가 제시

○ 〈14·5 규획〉의 6대 목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국가 거버넌스(国家治理)의 새로운 제고임.

[표 5]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의 6대 목표

구분	주요 내용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 질적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 달성 • 성장 잠재력의 완벽한 실현 • 국내시장 강화, 경제구조 최적화, 혁신 능력 향상 • 산업 기초의 선진화, 산업 체인의 현대화, 농업 기초의 안정화, 도시와 농촌 지역균형 향상, 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대 발전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 높은 기준의 시장체제 기본 구축, 시장주체의 활성화 • 재산권 제도 개혁, 생산요소 시장화 분배 개혁 • 공정 경쟁체제 강화.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기본 형성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 국민사상과 도덕·과학과 문화·육체와 정신의 건강 수준 향상 • 공공 문화서비스·문화산업 시스템의 완비 • 국민의 풍요로운 정신과 문화생활 • 중화 문화 영향력의 제고와 중화민족 결속력 강화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 국토 공간의 개발과 보호 형세의 최적화 • 생산과 생활 방식을 녹색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성과 •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효율성 향상 •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생태환경의 개선 • 생태 안정 장벽의 강화, 도시와 농촌 거주환경 개선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 고품질의 고용 실현, 소득 분배구조의 개선 • 주민소득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동기화 •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와 국민 교육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 사회보장 시스템의 완비와 의료 시스템의 향상 • 탈빈곤 성과 확대와 농촌 활성화 전략의 전면 추진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	• 사회주의 민주법치의 개선 및 사회 공평성과 정의성 확대 • 국가행정 시스템·정부 역할의 개선,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 • 사회 거버넌스 수준 향상, 중대 위험체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공공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자연재해 방역수준 향상 • 보안의 적극적인 발전, 국방 및 군대 현대화의 실현

자료: 〈건의〉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각 목표에 '새로운(新)'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13·5 규획〉의 목표를 계승·발전시키고 중국 경제사회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을 강조한 것임.

- 〈13·5 규획〉 5대 목표: 중고속 성장 유지, 민생 향상, 국민소양과 사회문명 함양,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

○ 이와 함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국토계획, 환경, 대외전략, 국방, 안보 등 13개 분야에 대한 48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음.(경제분야 주요 정책은 [표 7] 참조)

3. 〈14·5 규획〉 경제 분야 목표와 특징

1) 경제성장 목표

▣ 〈14·5 규획〉 기간 경제성장 목표는 6% 이내로 예상

○ 〈건의〉에서는 〈14·5 규획〉 기간과 2035년까지의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2021년 3월에 발표될 〈14차 5개년 규획 강요(綱要)〉에는 6% 이내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함.

○ 시진핑 주석은 〈건의〉를 설명하면서, "중국경제는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이르고, 2035년까지 중국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이 2배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함.(新华网. 2020.11.3.)

- 세계은행 2019년 기준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만 2,536달러 이상인 국가를 의미함.

○ 시주석의 '설명'을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2035년)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임.

-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0,276달러(70,892위안, $1=6.8985)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2035년까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시주석은 기준연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추산한 것임. 따라서 COVID-19로 인해 저성장을 기록한 2020년 GDP를 기점으로 삼지 않을 경우, 실제 중국 정부의 목표치는 연평균 4.73%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

○ UBS 수석이코노미스트 왕타오(王涛)는 중국 정부가 〈14·5 규획〉 기간 내 경제성장 목표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5% 좌우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저축율 하락, 전통적 공급망의 변화 등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14·5 규획〉 기간 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이를 인식한 중국 정부도 GDP 성장보다는 도시화율 제고, GDP 내 소비 비중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체계 완비, R&D 비용 지출 제고 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리쉐송(李雪松) 역시 〈14·5 규획〉 기간 정부의 성장 목표치는 5% 좌우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 이는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에너지 소비 현황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는 주민소득 증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함.

- 同연구소가 예측한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5~6% 구간이며, 이는 2022년까지 중국이 COVID-19의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임.(财经眼. 2020.12.2.)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학술위원 왕쥔(王军) 역시, 〈14·5 규획〉 기간에 중국 정부는 주민소득증가를 위한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쌍순환'을 위한 수입대체형 소비, 새로운 스타일의 소비, 서비스 분야 소비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함.(南方财富网. 2020.12.2.)

○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경제위원회 부주임 리스진(刘世锦)은 부동산, 기초인프라 건설, 수출 등 그동안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요인들은 〈14·5 규획〉 기간에는 점차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음.

- 이를 대신해, 국유경제가 절대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산업의 효율 제고(독과점 해제), 소비 확대를 위한 현재 4억 명 수준 중산층 확대(목표: 8~9억 명), 기초과학 분야 R&D 능력제고를 추진할 것을 주장함.(南方财富网. 2020.12.2.)

○ 둥우(東吴)증권 수석애널리스트 타오촨(陶川)은 〈14·5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5%로 전망함.

- 이를 위해 도시화율은 13.5 목표치 대비 5%p를 제고하며, GDP 내 서비스업 증가치 비중을 60%(〈13·5 규획〉 목표 56%)로 제고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GDP 내 R&D경비 비중은 2.8%(이전 2.5%), 과학기술 공헌도는 65%(이전 60%), 주민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 5.5% 이상(이전 6.5% 이상)으로 전망함.(中国经营报. 2020.10.23.)

○ 관변단체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우리의 KOTRA에 해당)는 로이터 베이징발 소식을 인용하여,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약 5%로 정해졌다고 밝힘.(CCPIT. 2020.11.7.)

[표 6] 중국의 〈14·5 규획〉 내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치 전망

구분	전망 시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연평균)	비고
〈14·5 규획 건의〉	2020.11.	4.73% 이상	2035년까지 전망에 근거한 추산 결과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2020.11.17.	5% 이내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리쉐송
UBS 중국 투자연구부	2020.9.23.	5% 좌우	수석이코노미스트 왕타오
둥우증권	2020.10.23.	5~5.5%	수석애널리스트 타오촨

자료: 중국 내외 공개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2) 성장 전략의 변화

▣ 쌍순환 발전전략의 도입

○ 쌍순환(双循环)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쌍순환'은 2020년 5월 14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래 5월 2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3차 전체회의,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10월 22일 중공중앙정치국상무회의 등에서 언급되다가 이번 〈건의〉에서 주요 경제정책으로 발표됨.

○ 국내대순환은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분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및 산업과 실물경제의 균형발전, 산업간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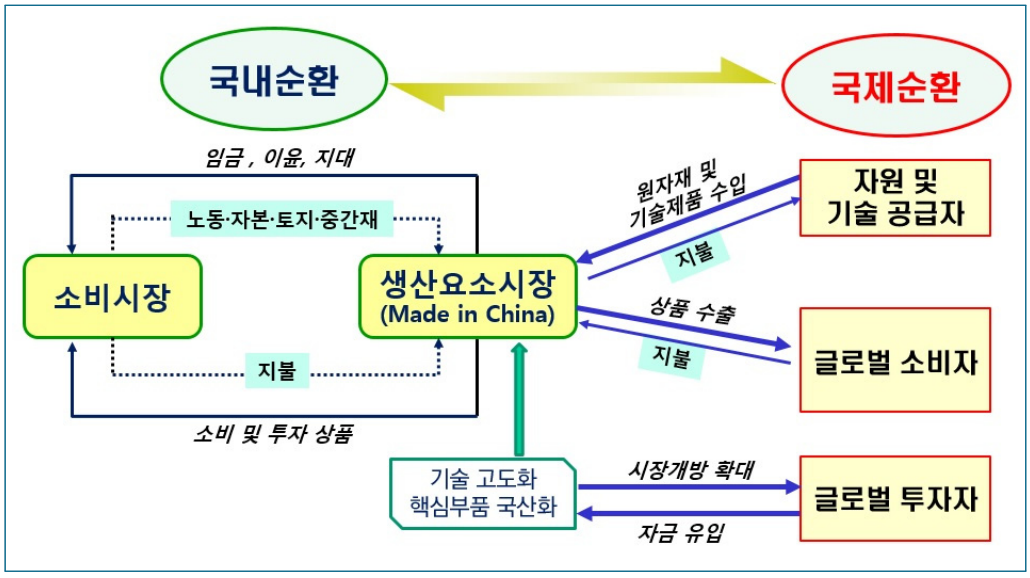
- 국내·국제 순환의 상호촉진은 중국이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수입, 원자재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수출 고도화, 대내외 무역 규범 및 표준 일체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임.

○ 쌍순환에서의 내수 활성화는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국민용 수요'는 장려하나, '수출용 수요'는 억제하려는 개념임.

-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내수주도 성장을 통해 GDP에서 투자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소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른 차원임.

• 즉 월마트의 미국 소비자를 위한 'Made in China' 제품 수출에 주력하지 않고, 상하이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해 기술 및 원자재 수입과 고부가가치 수출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임.

[그림 1] 중국의 국내·국제 쌍순환 개념도



자료: 남경옥·김우진(2020) 및 기타 공개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 중진국 함정의 극복과 미국의 기술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조성할 계획임.

- 인공지능,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품종개량,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연구 등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제시됨.

-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5]를 국제적인 과학기술 혁신센터로 육성 지원할 계획임.

▣ 산업구조 고도화

○ 기술개발을 통한 공급망 업그레이드와 다원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서비스업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함.

- 공급망 업그레이드 및 다원화를 위해, 전통산업 구조조정, 서비스형 제조업 육성, 기술개발, 국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함.
-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항공우주, 해양설비 등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함.[6]
  - 〈건의〉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에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추가됨.

▣ 소비와 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 〈14·5 규획〉에서 소비 촉진정책은 주민 가처분소득 제고와 중산층 형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업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소득분배 제도 개선,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소득분배 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가처분소득을 제고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함.
- COVID-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 및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의 소비시장 및 연휴 소비 확대를 추진함.

---

5) 웨강아오대만구는 광둥성·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지역통합 발전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김동하(2019),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INChinaBrief Vol.373를 참고할 것.

6) 전략적 신흥산업 목록은 2009년에 처음 제시됨. 2018년 기준 국가통계국 분류에 따르면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업,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에너지 절약), 디지털 산업, 관련 서비스 등 9대 산업임. 이번 〈건의〉에서는 디지털 산업과 관련 서비스 대신 항공우주와 해양설비가 새롭게 추가됨.

○ 전략적 신흥산업,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프로젝트 등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교통 및 수자원 관리와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중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신형 도시화와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함.
- 수력발전개발, 천체 관측,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산업화[7]를 추진하고, 중점 과학기술 연구 수행, 생태계 보호 및 재건, 공공 위생·보건, 송전 및 가스 배급, 홍수 및 재해 대비 등 국가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신형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COVID-19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제정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계획임.

-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 융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
-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거래, 유통, 국경 간 전송 및 보안에 대한 기본 시스템과 표준·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함.

○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전환을 강조했으며, 중국이 제시한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5 규획〉 기간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녹색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핵심 분야의 녹색 전환을 추진함.
- 중국 생태환경부는 〈14·5 규획〉 기간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시행)」을 제정하여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임.

7) GPS에 해당하는 중국의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기술 중 하나이며, 중국은 베이더우 시스템과 5G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신인프라 투자, 스마트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

○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분야(첨단산업, 자본시장 등)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역내 다자주의 협력 확대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 관련,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외자기업의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외자유치 환경을 개선함.
-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를 대외개방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 개선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을 육성함.
- WTO 개혁 참여를 비롯해 다자·양자 및 지역 간의 투자와 무역 협력기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함. 또한, FTA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시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제시함.[8)]

8) 2020년 11월 15일에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RCEP이 타결됨. RCEP 무역 규모는 5.4조 달러로 전 세계 30% 수준이며, GDP는 26.3조 달러(세계 32%), 인구 22.6억 명 규모의 Mega FTA임. 또한, 2020년 12월 30일에는 중국-EU 투자협정도 체결되었음. 2014년 1월 1차 협상 후 35차례 회의를 거쳐, 지적재산권 강화, 국유기업 의무조항 부가, 기술 강제이전 및 관행 금지, 보조금 투명성 강화 등에 합의한 결과임.(商务部. 2020.11.15/ 노컷뉴스. 2020.12.31.)

4.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 〈14·5 규획〉은 역사상 두 번째로 15년 장기계획 목표와 동시에 제정된 5개년 규획으로, '두 개 100년 목표'[9]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14·5 규획〉과 함께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9대 〈2035년 장기목표(2035年远景目标)〉를 발표함.
-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특히,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을 2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임.

○ 〈14·5 규획〉 기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쌍순환 발전전략은 단순히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발전전략으로 전환이 아니라, 미국의 전방위적인 견제가 장기화될 것에 대응하겠다는 성장 전략으로 평가됨.

- 이는 미국의 무역 및 기술에 대한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부품 및 기술, 공급망,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임.
- 특히 중국의 기존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 과학기술 자주 혁신, 산업고도화, 첨단제조 및 핵심 부품의 수입대체, 가처분소득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등을 대미 제재 대응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쌍순환의 국내대순환을 구축하는데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

9)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에 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

- 이에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고용 확대→ 소득향상 및 중산층 확대→ 소비 확대→ 첨단제품 및 서비스 수요 확대→ R&D 재투자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 할 것.
- 중국 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AI,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품종개량,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등)에 국가 지원이 집중될 것이며, 기존에 국가 주도로 개발하였던 기초연구 분야는 산·관·학·연 협력이 확대될 것임.

○ 〈14·5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임.

- 이전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기 정책보다는 도농·지역 간 격차 해소, 고용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중산층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이전 인프라 및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성장 잠재력 제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에 유리한 분야(신산업, 신형인프라, 신형도시화)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임.

○ 〈14·5 규획〉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및 녹색성장으로의 발전방식 전환이며, 이는 이후에도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임.

-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해 '신형인프라'[10]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산업 육성·표준 및 규범 제정,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임.
- 녹색성장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11] 달성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 및 산업 육성을 본격 시작할 것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녹색금융,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임.

10) 신형 인프라: 5G기지국, 특고압선, 도시 간 고속철·도시궤도교통, 신에너지차 충전소, 빅데이터센터, AI, 산업인터넷 등 7대 인프라.
11)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에 개최된 제75차 UN총회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共产党员网**. 2020.9.30.)

2) 시사점

○ 〈14·5 규획〉은 중국이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5개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일대 시각 전환이 요구됨.

- 중국은 2019년에 1인당 GDP 1만 276달러로 고수준의 중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따라서 이전 GDP 1만 달러 이하 개발도상국이라는 시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았던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180도 바꾸어야 할 시점임.
- 소득수준 제고와 내수시장 확대로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식음료품, 농산품 등) 및 서비스(관광,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와 진출 확대라는 기회 요인이 창출될 것임.

○ 〈14·5 규획〉 기간 내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과학기술 자주 혁신은 기회 및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산업고도화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와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중 간 기술표준, 규범 제정 등 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임.
- 반면,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부품 개발,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 대체로 인한 대중 수출(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감소, 글로벌시장(반도체,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부상할 것임.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및 그린뉴딜과 맥이 닿아 있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을 모색해야 함.

- 중국의 언택트 산업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FTA 후속 협상을 통해 디지털 의료,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모바일 게임, 스마트 물류 및 결제, 온라인 교육 분야에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녹색성장 전환에 따라 한국의 환경 분야 협력, 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라는 기회가 생성될 것임. 특히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전환을 모색해야 함.

○ 〈14·5 규획〉은 '미·중 간 경쟁에 지지 않을 경제·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담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역·투자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함.

-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기업 제재에 대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리스트에 관한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수출관리법(出口管制法)」 등 법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향 분석 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표 7] 중국의 〈14·5 규획〉 내 경제분야 주요 추진 정책 내용

과제	주요 추진 정책
과학기술역량 강화	종합형 국가과학중심 및 혁신발전지역 건설.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대만구가 국제과학기술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차세대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항공우주, 해양설비 등의 산업 발전 가속화
인프라 건설	신형 기초인프라 체계적 배치, 5G, 공업인터넷, 빅데이터의 센터 건설
중점 지역 투자확대	쓰촨성-시짱 고속철, 서부육해신통로(충칭-구이저우-광시-간쑤-아세안-싱가포르 물류망 구축), 국가 수자원 관리망, 아루장부(雅鲁藏布)강 하류 수력발전개발
거시경제 거버넌스	재정·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고용·산업·투자·소비·환경보호·지역정책과 협력하는 목표 최적화, 합리적 분업, 고효율·조화로운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현대화된 재정금융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 현대화, 통화공급제어 메커니즘 개선, 디지털화폐 R&D, 이자율 시장화·전달시스템 개선. 국유상업은행 개혁, 중소은행·농촌신용협동조합 발전지원,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상장폐지시스템 구축, 직접금융 비중 향상, 예금보험시스템 개선
고도화된 시장 시스템 구축	공평한 진입허가, 공정한 감독·관리, 준법성실원칙 고수, 공정경쟁 통일된 국내시장 형성, 재산권 사법보호 시스템 구축,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구축, 지속적 진입제한 완화, 공정경쟁 심사제도 구축, 반독점과 부정경쟁법 사법 집행 강화
지역균형 발전	징진지(京津冀)·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장삼각(长三角)지역·슝안신구(雄安新区) 발전추진, 황허유역 생태계 보호 및 개발
신형 도시화 추진	호구제도 개혁심화, 재정이전 지불제도 수립, 도시 신규 택지 규모와 도시 이주인구 정착 연계체계 마련, 이주인구 도시민화 촉진, 중심·위성도시 연계를 위한 현급시 역할 강화, 청위(成渝)경제권 건설
저탄소·녹색 발전	2030년 정점으로 탄소배출 감축이행, 녹색개발 관련 법률·정책보장강화, 녹색금융 개발, 환경 보호 산업 발전 촉진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新체제 구축	FDI: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개선, 서비스업 대외개방 순차확대, OFDI: 해외투자촉진과 보장을 위한 법률·정책·서비스체계 완비, 자유무역시험구 배치 완비와 개혁자주권 확대,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상호이익 협력관계 구축.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전시·박람회 플랫폼 역할 발휘
글로벌경제 거버넌스 체계개혁 참여	다자무역체제 수호, WTO 개혁 참여, 다자·양자지역 투자·무역협력기제에 참여, 신흥분야 경제 거버넌스 규칙제정 촉진, 글로벌금융 거버넌스 능력제고. 고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인구 노령화 대응	출산정책 최적화·포용성 강화, 출산서비스 수준 제고, 보편적 혜택의 보육·위탁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양육·교육 비용 절감, 인구 장기균형발전 추진. 양로사업·산업의 협동발전 추진, 기본양로서비스 체계 완비, 보편 혜택형 양로서비스 및 상조(互助)성 양로 발전, 의료·건강양로 상호결합형 서비스 체계 구축

자료: 〈14.5 규획 건의〉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참고자료

김동하(2019a).『현대중국경제사-5개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차이나하우스.
_____(2019b),「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INChinaBrief Vol.373. 인천연구원.
남경옥·김우진(2020),「중국 쌍순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현상백·최원석·문지영·이효진·오윤미(2020).「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중국사업단(2016).「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 KOTRA.
胡鞍钢·鄢一龙(2012).从经济指令计划到发展战略规划:中国五年计划转型之路(1949-2009年),「国情报告(第十二卷.2009年.下)」. 441.
"温家宝:关于制定十一五规划建议的说明(全文)" 中新网. 2005.10.19.
http://www.chinanews.com/news/2005/2005-10-19/8/640519.shtml(검색일: 2020년 12월 31일)
"汪涛 : 十四五规划有何可期？" 华夏时报. 2020. 9. 23.
https://baijiahao.baidu.com/s?id=1678598571735582952&wfr=spider&for=pc(검색일: 2020년 12월 29일)
"习近平在联合国生物多样性峰会上的讲话(全文)" 共产党员网. 2020.9.30
http://www.12371.cn/2020/10/01/ARTI1601512812000506.shtml?from=groupmessage(검색일: 2020.12월 21일)
"钟山部长代表中国政府签署《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 商务部. 2020.11.15.
http://fta.mofcom.gov.cn/article/rcep/rcepnews/202011/43458_1.html (검색일: 2020년 12월 21일)
"中-EU 투자협정 7년만에 타결…유럽연합 통해 개방의지" 노컷뉴스. 2020.12.31.
https://www.nocutnews.co.kr/news/5474073(검색일: 2021년 1월 4일)
""十四五"GDP目标如何设定？十四五规划GDP增长目标" 财经眼. 2020.12.2.
http://www.zt5.com/gp/cjy/506674_2.html(검색일: 2020년 12월 31일)
"十四五GDP目标如何设定？十四五规划GDP增长目标" 南方财富网. 2020.12.2.
http://www.southmoney.com/redianxinwen/202012/7844274_3.html(검색일: 2020년 12월 31일)
"前瞻"十四五"规划 : GDP增长目标或进一步淡化" 中国经营报. 2020.10.23.
https://xw.qq.com/amphtml/20201023A05BQ900(검색일: 2020년 12월 31일)
"中国"十四五"GDP年增长目标考虑定于5%" CCPIT. 2020.11.7.
http://www.ccpit.org/contents/channel_4113/2020/1107/1305147/content_1305147.htm(검색일: 2020년 12월 31일)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新华网. 2020.11.3.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년 12월 23일)
"习近平 : 关于《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的说明" 新华网. 2020.11.3.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1/03/c_1126693341.htm(검색일: 2020년 12월 28일)
중국통계포털(https://data.stats.gov.cn)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